

세대 격차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대학생과 그 부모의 태도 및 행위 격차—

金一鐵** · 趙東紀***

<目 次>	
I. 서 론	1. 아버지와 자녀의 태도·행
II. 분석의 방법	위의 일반적 성향
1. 분석의 틀	2. 부모·자녀간 태도 차이도
2. 개념의 조작화	3.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III. 결과의 해석	IV. 종합적 검토

I. 서 론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가 경험한 변동의 양상은 서구사회 일반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질과 양의 모든 면에서 매우 급격한 것이었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된 변동의 방향을 산업화, 도시화, 조직체화 등으로 요약해 본다면, 사람들의 의식의 차원에서는 합리화, 개인주의화, 민주화 등이 중요한 변화의 방향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그 속도나 방향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식에 서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그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험을 놓고 볼 때 6, 70년대에는 그간에 급속하게 전개된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유입된 서구적 가치관과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 사이의 극심한 갈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 구조적 차원의 변화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식 사이에서 비롯된 갖가지 혼란 등이 이 시기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적 현상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급진적

* 본 연구는 아산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사회학과 교수

*** 사회학과 석사

사고의 확산, 중심적 가치관의 와해 및 새로운 주도적 가치관의 부재 등으로 또다른 양상의 사회문화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대학생 집단은 예외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방성과 순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생 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를 끊임없이 비판·설득하면서 한국사회와 의식문화의 흐름에 크게 참여해 왔다.

대학생 집단의 이러한 진보적 성향과 기성의 보수적 문화의 마찰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대학생을 자녀로 둔 아버지의 연령이 대체로 40대중반 이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기성세대란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대격차 연구를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시도로서 대학생과 그 부모(아버지)의 비교 조사를 통해 양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태도·행위의 다양한 차이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자녀간 태도의 차이도'와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1) 부모·자녀간의 태도 차이는 가족의 배경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2) 부모·자녀간의 태도 차이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자녀의 태도·행위 간의 불일치성은 가족의 배경 및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4) 부모·자녀간의 태도 차이와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성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5)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성과 아버지의 그것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등이 본 연구에서 검토될 문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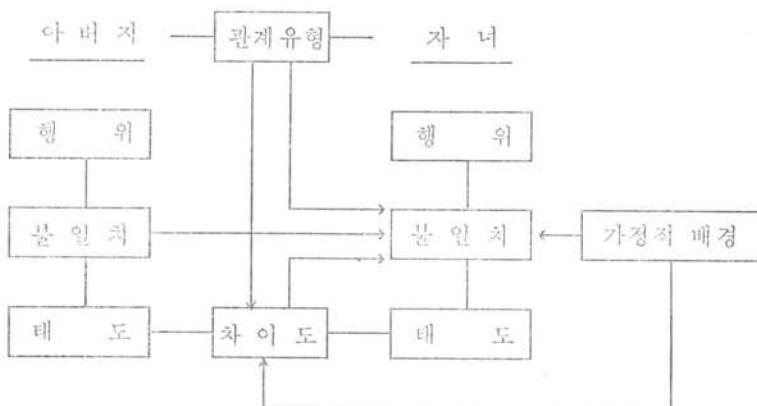
II. 분석의 방법

1. 분석의 틀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주관으로 1987년 11월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총 응답 사례 중에서 분석에 유효한 것은 모두 82사례로 남학생과 그 아버지 39, 여학생과 그 아버지 43으로 구성

되어 있다.⁽¹⁾

서론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부모(아버지)의 태도·행위, 자녀(대학생)의 태도·행위, 가정배경, 부자관계 등의 분석적 개념들이 필요한데, 이들을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여기서 ‘불일치’(disparity)라는 개념은 한 개인의 태도와 행위간에 존재하는 괴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차이도’(difference)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두 개인에 있어서의 태도나 행위의 차별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인의 의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태도와 행위를 구분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조사·분석과정에서 그 개념들을 조작화하여 변수로서 측정해내는 데에는 상당한 난점들이 존재한다. 한 개인의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태도 자체도 그가 속한 집단의 성격이나 문제되는 쟁점들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나 대학생의 태도와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치관, 여성관, 자녀관 등과 같은 여러가지 쟁점영역 뿐만 아니라, 동일한 쟁점이라도 어떠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제기되는 것인가, 즉 가정인가 아니면 직장 또는 학교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1987년 현재 서울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구성비가 3:1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표본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러한 성비는 분석에서 선각한 결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세대격차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검토작업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표집상의 이러한 오차를 고려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어려움들과 비교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생과 그 아버지의 여성에 대한 태도·행위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위에서 쉽게 부딪히면서도 태도와 행위 간의 구분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또는 학교 등에 관계 없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으로서 분석에서 타당성있게 비교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태도와 행위는 여러가지 축을 가질 수 있다. 진보적-보수적, 근대적-전통적 등과 같이 다소 포괄적인 방향을 가진 축들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라는 쟁점을 둘러싼 아버지와 그 자녀의 태도·행위의 비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권위주의적(authoritarian)-평등주의적(equalitarian)’이라는 축을 사용할 것이다.

2. 개념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어떤 사안에 대한 비교적 일관성있는 관념적인 성향’이라 하고 행위를 ‘어떤 상황에 대한 비교적 일관성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식’으로 규정한다. 아버지와 그 자녀의 태도와 행위는 ‘여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측정된다. 다시 말하면 (가) 여성의 능력, (나) 여성의 사회활동, (다) 어머니로서의 성역 할, (라) 배우자상 등에 대하여 태도 항목과 행위 항목을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견해를 ①‘권위주의적이다’에서 ⑤‘평등주의적이다’로 이어지는 5점 척도로 측정하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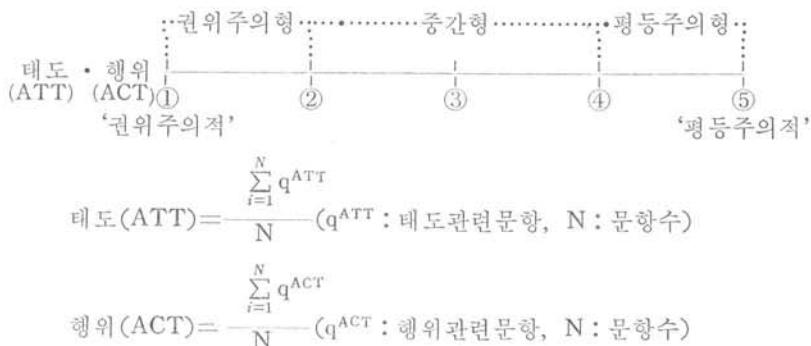
- (2) 본 조사에서 부모와 자녀의 태도·행위는 각각 2개씩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된다. 먼저 태도는 (가)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및 (나) “여성도 집에서만 있기보다 자기능력껏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두 가지 의견 각각에 대해 ①‘대단히 반대’(권위주의적) — ⑤‘대단히 찬성’(평등주의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행위는 (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①‘대단히 찬성’(권위주의적) — ⑤‘대단히 반대’(평등주의적)라는 것과, (나) 좋아하는 배우자(아버지의 경우 아들 또는 딸의 배우자) 유형에 대해 ①‘조용하고 고분고분한 여성(아내와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남성)’ — ⑤‘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성(부부간의 이해와 대화를 중요시하는 남성)’이라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의 결과 Cronbach의 α 값은 다음과 같다.

$$\alpha = \frac{kr}{1+(k-1)r}$$

k : 문항수 r : 문항들 사이의 평균상관계수

부 모 의 대 도	.663	자녀 의 태 도	.567
부 모 의 행 위	.396	자녀 의 행 위	.530

‘권위주의형’, ‘중간형’, ‘평등주의형’ 등으로 제법 주화 하였다.



태도 · 행위 불일치도는 태도번수와 행위번수 간의 괴리정도에 의해 측정되는데, 여기에는 3가지의 분석적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행위에 비해 태도가 더 평등주의적인 것으로 ‘행위 불일치형’이다. 두번째 유형은 태도와 행위가 일치하는 ‘태도 · 행위 일치형’이고, 세번째 유형은 태도에 비해 행위가 보다 평등주의적인 ‘태도 불일치형’이다.

〈그림 2〉 태도 · 행위 불일치 유형

관 계	유 형
태 도 > 행 위	행위 불일치형
태 도 = 행 위	태도 · 행위 일치형
태 도 < 행 위	태도 불일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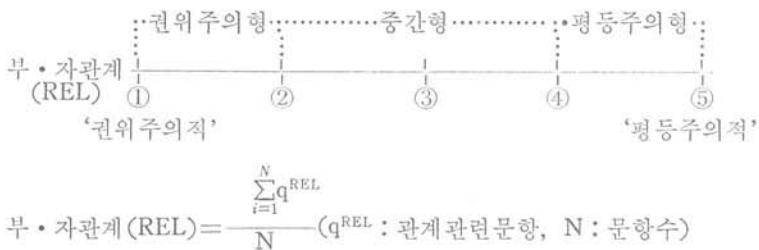
아버지와 자녀의 태도의 차이도는 아버지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정도에 의해서 측정되는데, 여기에서도 분석적으로 3개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부권위주의형’으로서 아버지의 태도가 자녀의 그것보다 더 권위적인 형태이다. 두번째는 아버지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가 일

		자녀의 태도		
		권위주의형	중간형	평등주의형
부모의 태도	권위주의형	일	부권위주의형	
	중간형		치	
	평등주의형	자권위주의형		형

〈그림 3〉 아버지-자녀간 태도 차이 유형

치하는 ‘부자 일치형’이고, 마지막 세번째는 자녀의 태도가 아버지보다 더 권위적인 ‘자권위주의형’이다.

아버지·자녀간의 관계 유형은 (가) 아버지-자녀간 대화 빈도, (나) 아버지의 자녀의견 존중도, (다)자녀의 아버지의견 순종도 등에 대한 것을 ①‘권위주의적이다’에서 ⑤‘평등주의적이다’로 이르는 5점 척도로 측정하고⁽³⁾ 비교 분석을 위해 ‘권위주의형’, ‘평등주의형’, ‘중간형’ 등 3개의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가정적 배경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모의 직업은 총 유효 사례수에 비해 너무 다양한 분포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부모의 소득은 월평균 ① 30만원~59만원, ② 60만원~99만원, ③ 100만원 이상으로 재범주화 하였고, 부모의 학력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졸 아니면 대졸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①고졸 이하와 ②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응답자 모두 40대 중반 이후이므로(평균 51.35세) 크게 ① 40대(50세 이하)와 ② 5, 60대(51세 이상)로 나누었다.

이밖에도 부모의 종교, 출생지, 자녀수, 주택소유 형태, 자녀의 성별, 자녀의 전공 등이 배경변수로 조사되었으나 크게 유의미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 (3) 본 조사에서 부자관계의 유형은 모두 3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먼저 (가) 아버지 자녀간 대화 빈도는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 가족성원끼리의 의사교환은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①‘거의 하지 않는다’ — ⑤‘거의 매번 한다’로 측정하였고, (나) 아버지의 자녀의견 존중도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거의 존중하지 않는다’ — ⑤‘아주 존중한다’로, 그리고 (다) 자녀의 아버지 의견 순종도는 “아버지와 자녀가 의견이 다를 경우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따라야 한다’ — ⑤‘옳지 않은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로 나누어 각각 측정하였다.

부분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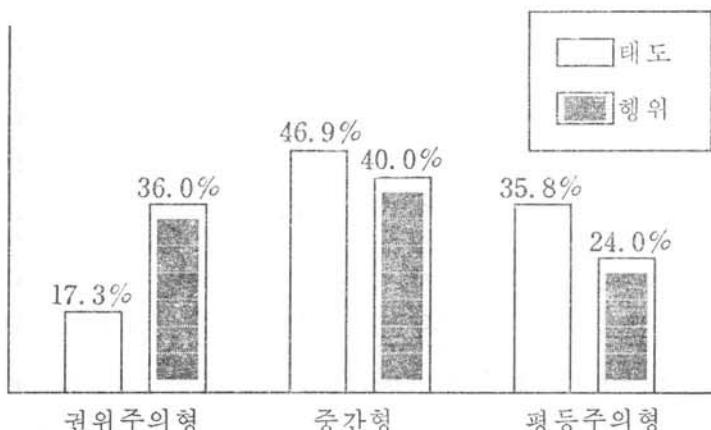
III. 결과의 해석

본 장에서는 이상에서 마련된 분석의 방법을 토대로 얻은 결과를 서론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들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부모와 자녀간의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것과 ②‘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는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이다. 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부모들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가지는 태도와 행위의 일반적인 성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버지와 자녀의 태도·행위의 일반적 성향

가) 아버지의 태도와 행위

태도 항목을 구성하는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태도 항목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시 3개의 범주로 나누어 ①‘권위주의형’, ②‘중간형’, ③‘평등주의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여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비교적 평등주의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림 4〉 아버지의 태도·행위 유형

이에 비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버지 세대들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즉 태도와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방식, 즉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불일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아버지의 태도와 행위의 분포유형이 연령, 학력, 소득 등과 같은 배경변수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자.

〈표 1〉에는 배경변수에 따른 아버지의 태도유형의 분포가 나타나 있다. 소득에 의해서는 태도유형의 분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학력의 경우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이하보다 더 평등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연령에 의한 아버지의 태도유형의 분포는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40대 아버지 집단에서는 ‘중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평등주의형’으로 기울어진 분포가 나타나는 반면에 5, 60대의 경우는 ‘중간형’의 비중이 줄고 ‘평등주의형’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연령, 학력,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태도유형의 분포(단위: 명(%))

		아버지의 태도유형			
		권위주의형	중간형	평등주의형	계
연령	40대	6(13.6)	24(54.5)	14(31.8)	44(100.0)
	5~60대	8(21.6)	14(37.8)	15(40.5)	37(100.0)
소계		14(17.3)	38(46.9)	29(35.8)	81(100.0)
학력	고졸이하	7(25.0)	13(46.4)	8(28.6)	28(100.0)
	대졸이상	7(13.5)	24(46.2)	21(40.4)	52(100.0)
소계		14(17.5)	37(46.3)	29(36.3)	80(100.0)
소득	30만~59만원	4(13.8)	15(51.7)	10(34.5)	29(100.0)
	60만~99만원	3(13.6)	11(50.0)	8(36.4)	22(100.0)
	100만원 이상	6(21.4)	12(42.9)	10(35.7)	28(100.0)
소계		13(16.5)	38(48.1)	28(35.4)	7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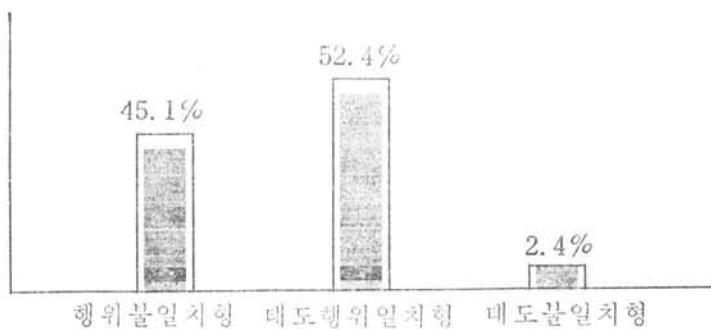
태도보다는 권위주의형으로의 편향이 컷던 행위유형의 분포는 배경변수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일까? 〈표 2〉에 연령, 학력,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행위유형의 분포가 나타나 있다.

〈표 2〉 연령, 학력,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행위유형의 분포(단위: 명(%))

		아버지의 행위유형			
		권위주의형	중간형	평등주의형	계
연 령	40대	15(36.6)	16(39.0)	10(24.4)	41(100.0)
	5~60대	12(35.3)	14(41.2)	8(23.5)	34(100.0)
소 계		27(36.0)	30(40.0)	18(24.0)	75(100.0)
학 력	고졸이하	12(46.2)	9(34.6)	5(19.2)	26(100.0)
	대졸이상	14(29.2)	21(43.8)	13(27.1)	48(100.0)
소 계		26(35.1)	30(40.5)	18(24.3)	74(100.0)
소 득	30만~59만원	11(45.8)	8(33.3)	5(20.8)	24(100.0)
	60만~99만원	6(13.6)	11(50.0)	5(22.7)	22(100.0)
	100만원 이상	10(35.7)	10(35.7)	8(28.6)	28(100.0)
소 계		27(36.5)	29(39.2)	18(24.3)	74(100.0)

〈표 2〉에 나타난 결과들을 볼 때, 아버지의 행위유형의 분포는 학력에 의해 다소 영향을 받을 뿐 소득이나 연령에 의해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이라는 배경변수가 아버지의 행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더 평등주의형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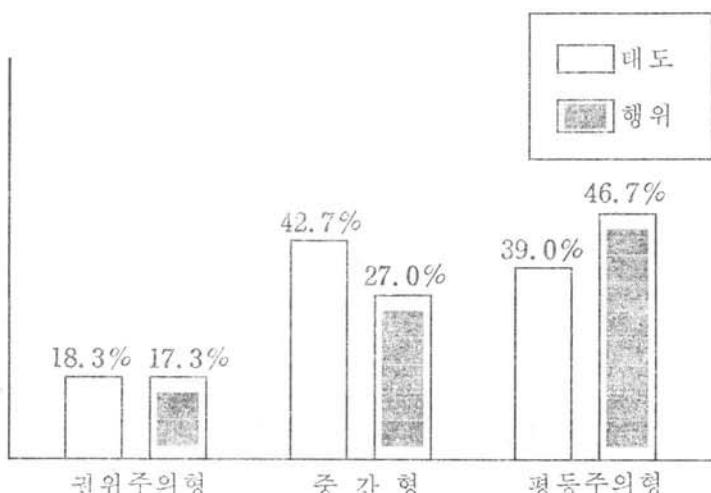
아버지의 태도유형의 분포가 평등주의적인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에 행위유형의 분포는 반대로 권위주의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 세대의 태도·행위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일치의 성격에 따라 ① ‘행위 불일치형’, ② ‘태도·행위 일치형’, ③ ‘태도 불일치형’ 등으로 유형화시켜 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 세대들의 ‘태도·행위 불일치유형’의 분포는 ‘태도·행위 일치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 불일치형인 ‘행위 불일치형’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나) 자녀의 태도와 행위

아버지의 태도와 행위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의 태도와 행위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태도와 행위 모두 평등주의적인 지향을 보이고 있다. 태도의 경우 아버지들 세대는 ‘평등주의형’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해, 자녀들 세대의 경우는 ‘중간형’과 거의 같은 비율로 ‘평등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자녀의 태도·행위 유형

자녀들 세대에 있어서 행위유형의 분포는 부모들 세대의 경우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의 행위유형은 권위주의적인 편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녀의 경우는 ‘평등주의형’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인간의 태도·행위 변화는 관념적인 수준에서의 태도의 변화가 먼저 있은 후에 현실적 차원의 행위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자녀의 행위유형의 분포는 태도유형의 분포보다 더 강한 평등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다음 절에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녀의 태도와 행위 유형의 이러한 분포는 그의 성별이나 전공분야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성별의 차이가 태도와 행위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됨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전공도 그의 태도와 행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3〉에 성별, 전공별 자녀의 태도유형의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약하게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여학생은 강한 평등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평등주의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는 쟁점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학생의 경우 '여성'에 대한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학생 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전공에 따른 태도유형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의 학생들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결과는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4〉는 성별과 전공에 따른 자녀의 행위유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성별에 따른 행위유형의 분포를 보면 태도에서 평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보였던 여학생 집단은 행위유형에 있어서도 여전히 '평등주의형'으로 기울어져 나타나고 있다. 전공에 따른 행위유형의 차이를 보면 태도와는 달

〈표 3〉 성별, 전공에 따른 자녀의 태도유형의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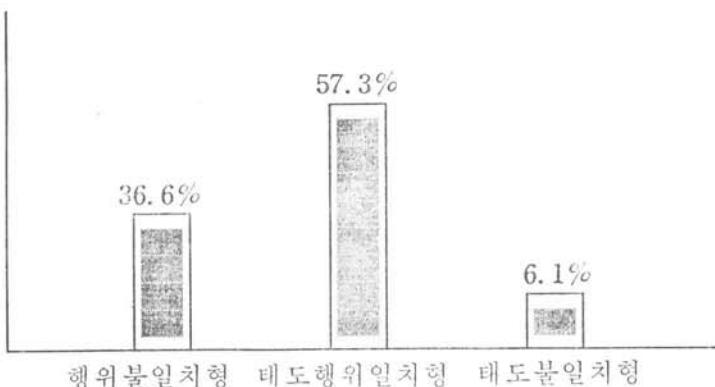
		자녀의 태도 유형			
		권위주의형	중 간 형	평등주의형	계
성 별	남	12(30.8)	22(56.4)	5(12.8)	39(100.0)
	여	3(7.0)	13(30.2)	27(62.8)	43(100.0)
소 계		15(18.3)	35(42.7)	32(39.0)	82(100.0)
전 공	인 문 사 회	6(15.0)	18(45.0)	16(40.0)	40(100.0)
	이 공 계	7(18.9)	16(43.2)	14(37.8)	37(100.0)
소 계		13(16.9)	34(44.2)	30(39.0)	77(100.0)

〈표 4〉 성별, 전공에 따른 자녀의 행위유형의 분포 (단위: 명(%))

		자녀의 행위 유형			
		권위주의형	중간형	평등주의형	계
성 별	남	13(37.1)	13(37.1)	9(25.9)	35(100.0)
	여	0(0.0)	14(35.0)	26(65.0)	40(100.0)
소 계		13(17.3)	27(36.0)	35(46.7)	75(100.0)
전 공	인문사회학 이공계	5(13.9) 7(20.6)	11(30.6) 13(38.2)	20(55.6) 14(41.2)	36(100.0) 34(100.0)
	소 계	12(17.1)	24(34.3)	34(48.6)	70(100.0)

리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보다 약간 더 평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들 세대의 태도·행위 불일치 유형은 아버지 세대의 그것에 비해 ‘행위 불일치형’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대신 ‘태도·행위 일치형’과 ‘태도 불일치형’의 비율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태도·행위 일치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기성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 불일치유형인 ‘행위 불일치형’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유형

이상에서 부모 집단과 자녀 집단의 태도·행위 및 그 불일치 유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는 부모 집단과 자녀 집단을 분리시켜 그 각각에

있어서의 태도·행위 특성들을 검토하였지만 다음 장에서는 부모 집단과 자녀 집단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면서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와 부모·자녀의 태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부모·자녀간 태도 차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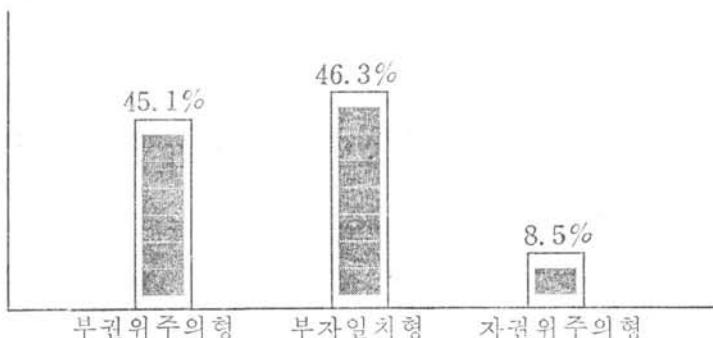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difference)는 아버지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간의 괴리정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분석적으로 ①‘부권위주의형’, ②‘부자일치형’, ③‘자권위주의형’의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림 8〉을 통하여 이러한 3가지 유형별 부자간 태도 차이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권위주의형’과 ‘부자일치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크게 작용하였던 한국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지보다 권위적이라는 ‘자권위주의형’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부권위주의형’보다 ‘부자 일치형’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조사의 대상이 한국사회 전체의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대학생과 그 아버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면 부자간의 이러한 태도 차이도는 여러가지 가정적 배경변수와 부자간의 관계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아버지 수입, 연령, 학력 등의 가정적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부터 살펴 보자.

가) 가정적 배경에 따른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

본 분석에서 고려하고 있는 가정적 배경변수로는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



〈그림 8〉 유형별 부자간 태도 차이도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연령 등이다. 먼저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를 살펴 보자. 〈표 5〉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아버지의 수입에 따른 부자간 태도의 차이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아버지의 수입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부자일치형’이 ‘부권위주의형’ 보다 많은 반면에, 수입이 중간정도인 아버지와 그 자녀 간의 태도 차이도의 유형분포는 ‘부권위주의형’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층에 속하는 아버지와 그 자녀의 경우에는 다시 ‘부권위주의형’의 비중이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학력이나 연령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아버지의 수입에 따른 부자간 태도 차이도 (단위 : 명(%))

		부자간 태도 차이도			
		부권위주의형	부자일치형	자권위주의형	계
소 득	30만~59만원	11(36.7)	18(60.0)	1(3.3)	30(100.0)
	60만~99만원	11(50.0)	8(36.4)	3(13.6)	22(100.0)
	100만원 이상	10(35.7)	10(35.7)	8(28.6)	28(100.0)
소 계		32(40.0)	36(45.0)	12(15.0)	80(100.0)

다음으로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를 보면, 5~60대 보다는 40대에서 ‘부권위주의형’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연령이 5~60대인 경우는 ‘부자일치형’이 ‘부권위주의형’ 보다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버지의 연령이 40대인 경우는 ‘부권위주의형’이 ‘부자일치형’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은 세대의 가정일수록 아버지가 자녀보다 더 권위주의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여기

〈표 6〉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부자간 태도 차이도 (단위 : 명(%))

		부자간 태도 차이도			
		부권위주의형	부자일치형	자권위주의형	계
연 령	40 대	23(52.2)	18(40.9)	3(6.8)	44(100.0)
	5~60 대	14(37.8)	19(51.4)	4(10.8)	37(100.0)
소 계		37(45.7)	37(45.7)	7(8.6)	81(100.0)

서는 아버지가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부권위주의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후자의 경우는 ‘부자일치형’이 ‘부권위주의형’보다 많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부권위주의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도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일수록 아버지의 태도가 덜 권위주의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것이다.

〈표 7〉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부자간 태도 차이도 단위 : 명(%)

		부자간 태도 차이도			
		부권위주의형	부자일치형	자권위주의형	계
학 력	고 졸 이 하	12(41.4)	17(58.6)	0(0.0)	29(100.0)
	대 졸 이 상	25(48.1)	20(38.5)	7(13.5)	52(100.0)
소 계		37(45.7)	37(45.7)	7(8.6)	81(100.0)

요컨대 아버지의 소득, 연령, 학력 등과 같은 가정적 배경에 따른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는 아버지의 연령과 학력에 의해서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모습으로 분포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소득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젊은 아버지와 그 자녀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은 아버지와 그 자녀일수록 양자간의 태도차이도의 분포는 ‘부권위주의형’이 줄어들고 ‘부자일치형’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본 조사의 결과는 그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번째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큰 힘으로 작용해 왔던 한국사회의 부자관계를 전제로 하여,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아버지와 그 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자간 태도 차이도의 실상—‘부자일치형’ 보다는 ‘부권위주의형’이 많다는 것—을 정상적인 경우로 보고 그 반대의 경우를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대상이 된 대학생과 그 아버지 집단은 한국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된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⁴⁾ 이러한 해석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실제로 본 조사에서 측정된 부자관계의 유형의 분포를 보면 ‘중간형’과 ‘평등 주의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 계 유 형	권 위 주 의 형	중 간 형	평 등 주 의 형
비 율(%)	9.8	59.8	30.5

보다 설득력 있는 두번째 해석은 보다 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세대, 즉 연령층이 낮고 학력수준이 높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의 경우, 평등주의적 태도로의 변화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훨씬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나) 부자관계에 따른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

본 조사에서 부자관계는 부자간 대화빈도, 아버지의 자녀의견 존중도, 자녀의 아버지 의견 순종도 등을 통하여 측정되었는데, 권위주의적 또는 평등주의적인 정도에 따라 ①‘권위주의형’, ②‘중간형’, ③‘평등주의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8〉은 부자관계의 유형에 따른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유형화된 추세를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표 8〉 부자관계유형에 따른 부자간 태도 차이도 단위 : 명 (%)

		부자간 태도 차이도			
		부권위주의형	부자일치형	자권위주의형	계
부자 관계	권 위 주 의 형	3(37.5)	3(37.5)	2(25.0)	8(100.0)
	중 간 형	20(40.8)	26(53.1)	3(6.1)	49(100.0)
관계	평 등 주 의 형	14(56.0)	9(36.0)	2(8.0)	25(100.0)
	계	37(45.1)	38(46.3)	7(8.5)	82(100.0)

먼저 부자관계가 ‘권위주의형’인 경우에는 부자간 태도차이 유형에서 ‘부권위주의형’과 ‘부자일치형’의 비중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권위적일수록 자녀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권위주의형’의 비중 증가를 결과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아버지의 그려한 권위에 그만큼 많이 동조하게 됨으로써 ‘부자일치형’의 비중도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인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에 쉽게 동조하리라고 보는 것도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보다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할 것이다.

‘중간형’인 부자관계에서는 부자간 태도 차이도의 원래 분포대로 ‘부자일치형’이 ‘부권위주의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자관계가 ‘평등

주의형'인 경우에는 '부자일치형'보다 '부권위주의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대와는 어긋나 보이는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아버지의 학력과 연령이 부자간의 태도 차이도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평등주의적인 부자관계 속에서 자라난 자녀일수록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평등주의적 태도로의 변화가 훨씬 크고 빠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3.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아버지와 그 자녀간에 나타나는 태도차이의 문제와 함께 본 분석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자녀의 태도와 행위 간에 나타나는 불일치의 문제이다. 앞에서 <그림 7>을 통하여 보았듯이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는 그 유형별로 분포를 볼 때, '태도·행위 일치형'이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 개인의 태도·행위간 불일치의 전형적인 형태인 '행위 불일치형'도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⁵⁾

이러한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가정적 배경, 부자관계 유형,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 부자간 태도 차이도 등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를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 가정적 배경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배경 변수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의 학력, 월평균 소득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 9>에 아버지의 연령, 학력, 수입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의 분포가 나타나 있다. 먼저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40대의

(5) 참고적으로 자녀의 성별에 따른 태도·행위 불일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불일치형		태도행위일치형	태도불일치형	계
남	17(39.5)	24(55.8)	2(4.7)	43(100.0)
여	13(33.3)	23(57.0)	3(7.7)	39(100.0)
계	30(36.6)	47(57.3)	5(6.1)	82(100.0)

〈표 9〉 아버지의 연령, 학력, 수입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단위: 명(%))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행위 불일치형	태도 행위 일치형	태도 불일치형	계
연령	40대	14(31.1)	28(62.2)	3 (6.7)	45(100.0)
	5~60대	16(43.2)	19(51.4)	2 (5.4)	37(100.0)
소계		30(36.6)	47(57.3)	5 (6.1)	82(100.0)
학력	고졸 이하	10(34.5)	19(65.5)	0 (0.0)	29(100.0)
	대학 이상	19(36.5)	28(53.8)	5 (9.6)	52(100.0)
소계		29(35.8)	47(58.0)	5 (6.2)	81(100.0)
소득	30만~59만원	10(33.3)	19(63.3)	1 (3.3)	30(100.0)
	60만~99만원	10(45.5)	10(45.5)	2 (9.1)	22(100.0)
	100만원 이상	10(37.7)	16(57.1)	2 (7.1)	28(100.0)
소계		30(37.5)	45(56.3)	5 (6.3)	80(100.0)

아버지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는 ‘태도·행위 일치형’이 ‘행위 불일치형’보다 암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5~60대 아버지의 자녀의 경우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태도·행위 일치형’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바와 일치하고 있다. 즉 5~60대 아버지 세대가 40대 아버지 세대보다 더 권위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자녀는 대학생이 되면서 새롭게 습득한 평등주의적 가치를 실제적인 행위로 옮기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이므로 ‘행위 불일치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는 고졸이하의 아버지를 가진 자녀가 대졸 이상의 아버지를 가진 자녀보다 ‘태도·행위 일치형’의 분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태도와 행위 간의 불일치도는 작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인데, 이것을 아버지의 학력이 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를 증가시킨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학력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개입에 의한 왜곡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버지의 소득에 따른 자녀의 태도와 행위 간의 불일치도를 보면, 저소득자 층에 속하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의 경우는 ‘태도·행위 일치형’이 ‘행위 불일치형’ 보다 월등히 높고, 중간소득층의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는 두

유형이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의 아버지를 둔 자식의 경우는 ‘태도·행위 일치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행위 불일치형’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 아버지들이 다른 범주의 아버지들에 비해 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서 습득하게 되는 평등주의적 태도와 실제적인 행위 사이의 격차를 더 많이 보이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 부자관계의 유형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부자관계를 그것이 권위주의적 또는 평등주의적인 정도에 따라 ‘권위주의형’, ‘중간형’, ‘평등주의형’으로 구분한다면 자녀의 태도·행위 간의 격차는 ‘권위주의형’의 부자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어릴 때부터 권위주의적인 부자관계 속에서 자라난 자녀의 경우에 태도와 행위의 격차가 적을 수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와 판단을 정립하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자녀가 그러한 권위주의적 관계의 틀을 지속적으로 따르며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적인 결과를 살펴보자.

〈표 10〉 부자관계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단위: 명(%))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유형			
		행위불일치형	태도행위일치형	태도불일치형	계
부자 관계	권위주의형	3(37.5)	3(37.5)	2(25.0)	8(100.0)
	중간형	20(40.8)	28(57.1)	1(2.0)	49(100.0)
	평등주의형	7(28.0)	16(64.0)	2(8.0)	25(100.0)
계		30(36.6)	47(57.3)	5(6.1)	82(100.0)

〈표 10〉에서 부자관계의 유형에 따른 자녀의 태도와 행위 간의 불일치도가 제시되고 있는데, ‘행위불일치형’이 많으리라고 기대되었던 권위주의적 부자관계에서는 ‘태도·행위 불일치형’과 ‘행위 불일치형’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평등주의적인 부자관계에서는 예상대로 ‘태도·행위 일치형’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자관계가 ‘중간형’인 경우에는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의 유형별 단순분포와 근사하게 ‘행위 불일치형’과 ‘태도·행위 일치형’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평등주의형’ 및 ‘중간형’의 부자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의 분포양상은 별다른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권위주의형’의 부자관계에서 보여지는 분포를 논리적으로 해석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행위 불일치형’과 ‘태도·행위 불일치형’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테 있는데, 일반적인 예측대로 권위주의적인 부자관계에서 성장한 자녀일수록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정도가 클 것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여 높은 비율의 ‘행위 불일치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비율의 ‘태도·행위 불일치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대학생이라는 자녀집단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와 동일한 비율의 ‘태도·행위 일치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와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태도가 아버지에 비해 더 권위주의적이라는 ‘자권위주의형’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때, ‘부자 일치형’보다는 아버지의 태도가 자녀의 그것 보다 권위주의적인 ‘부권위주의형’에서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가 더 크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는 부자간 태도 차이도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불일치’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자간 태도차이의 유형이 ‘부권위주의형’이든 ‘부자일치형’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녀의 ‘태도·행위 일치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자녀가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자간의 태도 차이도가 ‘부권위주의형’인 경우, 그 자녀는 태도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거부하고 평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지만

〈표 11〉 부자간 태도의 차이도와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단위 : 명(%))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유형			
		행위불일치형	태도행위일치형	태도불일치형	계
태도 차이	부권위주의형	15(40.5)	22(59.5)	0(0.0)	37(100.0)
	부자일치형	15(39.5)	21(55.3)	2 (5.3)	38(100.0)
	자권위주의형	0(0.0)	4(57.1)	3(42.9)	7(100.0)
계		30(36.6)	47(57.3)	5 (6.1)	82(100.0)

행위상으로는 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제들로 인해서 평등주의적인 것으로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행위 불일치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성이 ‘태도·행위 일치형’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자간 태도 차이도가 ‘부자일치형’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태도와 행위 간의 불일치 유형은 ‘태도·행위 일치형’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도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부자일치형’이나 ‘부권위주의형’ 모두에서 자녀의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 유형은 ‘태도·행위 일치형’의 비중이 보다 크고 또 그 차이가 두 유형 모두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부자간의 태도 차이도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라)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와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이미 살펴본 대로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는 ‘태도·행위 일치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성세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불일치’도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행위 불일치도는 자녀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표 12〉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에 따른 자녀의 태도와 행위의 불일치도는 아버지가 ‘행위 불일치형’이든 ‘태도·행위 일치형’이든 모두 자녀는 ‘태도·행위 일치형’의 비중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유형이 ‘태도·행위 일치형’일 경우가 ‘행위 불일치형’인 경우보다 자녀의 ‘태도·행위 일치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태도와 행위의 격차가 심한

〈표 12〉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와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단위: 명(%))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 유형			
		행위불일치형	태도행위일치형	태도불일치형	계
아버지의 불일치 유형	행위 불일치형	15(40.5)	20(54.1)	2(5.4)	37(100.0)
	태도행위일치형	15(34.9)	25(58.1)	3(7.0)	43(100.0)
	태도불일치형	0(0.0)	2(100.0)	0(0.0)	2(100.0)
계		30(36.6)	47(57.3)	5(6.1)	82(100.0)

아버지를 가진 자녀일수록 그도 태도와 행위 간의 괴리를 크게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 자체가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은 후에야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와 자녀의 그것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IV. 종합적 검토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격차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시도라 할 수 있는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 태도의 차이’,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주요한 관심을 두면서 각각의 문제를 몇 가지 배경변수와의 관련 속에서 분석·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의 합의를 정리하기에 앞서 그에 필요한 몇 가지 전제들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조사대상의 특수성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서울에 거주하는 그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기대는 다른 어느 집단 보다도 높다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서울은 한국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약하다는 점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쟁점의 제한성이다. 본 연구는 세대간 태도와 행위의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 주는 유용한 지표의 하나라는 분석상의 잇점에서 ‘여성’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태도와 행위가 쟁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서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해 보자. 아버지와 자녀간의 태도의 차이도(difference)는 역시 아버지가 자녀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큰 힘으로 작용해 왔던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세대간 격차의 일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소한 차이지만 부자간의 태도가 일치하는 유형이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조사대상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소득, 학력, 연령 등과 같은 배경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보면 학

력, 연령에 의한 차이에 비해 소득에 의한 차이가 다소 희미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이라는 변수가 학력이나 연령에 비해 복합적인 차원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양한 차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억제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과 연령에 의한 영향이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조사대상의 특수성 및 다른 변수들의 개입에 의한 왜곡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녀의 태도와 행위 간의 불일치성(disparity)의 문제를 살펴보면 태도와 행위가 일치하는 유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대체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영향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아버지 세대의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거부하는 방향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의 차이를 보면 아버지가 연령이 많은 세대일수록 자녀는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를 더 많이 보이고 있으며, 학력에 따른 차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의 경우가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보아 고소득층의 아버지 세대일수록 자녀의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의 연령과 소득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자간 관계의 유형에 따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는 대체적으로 볼 때, 부자관계가 비권위적일수록 자녀는 태도와 행위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자관계를 ‘권위주의형’이라고 구분한 경우에는 불일치와 일치의 경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가지 해석상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아버지의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에 따른 그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도의 차이를 보면 태도와 행위의 격차가 심한 아버지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자녀도 더 많은 태도·행위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자녀의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들 중에서 아버지의 소득, 학력, 수입과 같은 가정적 배경이나 아버지의 태도·행위 불일치성, 부자간 태도 차이도 등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나, 체계적인 관계로 엮어지기에는 너무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독립된 각 변수들과의 일원적인 비교가 아니라 상호관련된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될 때 자녀의 태도·행위 불일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조사대상의 특수성이나 쟁점의 제한성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볼 때,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간의 태도의 격차는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대학생과 그 아버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가 우리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세대간의 격차현상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현

김태길

1970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일조각.

박용현

1986 “대학생의 가치의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해방 40년 :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준국 외

1978 “한국 대학생의 의식구조 연구,”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제 1집.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1987 『전후 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서울대학교 출판부.

송석우

1984 “대학생의 가치관 조사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제22권 제 1호. 아산사회복지재단 편

1983 『현대사회와 청소년』.

이동식

1980 “전통적 가정원리와 현대가족의 제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통적 가치관과 세가관치의 정립』.

이상주

1983 “기성세대와 청소년 : 세대차의 문제와 대책,”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 사회와 청소년』,

차재호 외

1989 “서울대학생의 집단 특성 연구 I,”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24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홍승직

1963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 연구』, 11권.
Bradt, Vincent S.R.

1985 “Aspiration and Constraints: Social Revolution in South Korea by the Year 200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년의 한국’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Kim Il-Chul

1990 “University Education and Guiding Paradigms: A Hypothetical Exposition,”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제』(장인협 박사 경년퇴임기념 논문집).

Kluckhohn, Clide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Lim, Hy-sop

1974 “A Study on Legal Values in Korea: An Analysis of Attitude toward Law,” *Social Science Journal*, Vol. 2,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